

##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3): 근대편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 국문초록

‘자서전’이라는 서구의 장르와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경이지만, 일제 강점기 내내 자신의 자서전을 신문에 연재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행본은 아닐지라도 단편 자기서사라 부를 수 있는 짧은 자전적 서사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잡지 지면을 통해 속속 출판이 되었고, 특히 이 장르의 생산과 토착화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근대 여성의 단편 자기서사들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다양한 존재방식으로 일종의 독립적인 장르를 형성함으로써, 장르와 필자의 성별 정체성 사이에 특별한 친화력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 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잡지 지면에 출판된 여성들의 단편 자기서사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0-042- A0043)을 받은 박혜숙(인하대학교), 최경희(시카고대학교), 박희병(서울대학교) 3인의 협동연구의 결과물 중 일부이다. 전통편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제1편과 제2편은 각각 『여성문학연구』 제7호와 제8호에 게재되었고, 이번 호에 게재되는 근대편은 최경희가 대표집필하였다. 근대편의 일차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 이미향, 자료 보충과 확인 작업에 도움을 준 김예림, 이재연, 임종명, 글의 구성과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이선옥, 손수영, 이현정에게 감사를 표한다.

의 역사와 특성,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잡지를 통한 출판이라는 근대적 생산조건과 피식민지 경험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이 일제 강점기의 여성의 자기서사 장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단편 여성 자기서사의 형식과 선택적 주제는 당시 증대되는 근대 여성독자군을 상대로 여성근대화의 요구에 부응한 잡지 출판계의 생존전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여성들이 필자로서 독자로서 이 단편 자기서사의 생산과 수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장르는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대중교육과 사유촉진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필자의 높은 장르 점유도는, 민족이나 계급문제를 통한 체제비판적 담론이 검열제도에 의해 억압되고 남성의 자기서사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식민지적 특수상황의 산물이기도 하다.

- 핵심어 : 일제 강점기, 성별정체성, 장르, 자서전, 단편 자기서사, 잡지, 근대성, 소녀, 여성, 학교

## 1. 들어가는 말: 성별 정체성과 단편 자기서사 장르, 그리고 출판의 조건

전통시기 여성들의 자기서사에 대한 고찰의 뒤를 이어 근대 한국여성들의 자기서사를 조망하는 이 글은, 해방이래 남한과 북한의 자기서사의 생산 조건에 생긴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불연속성을 감안하여, 고찰의 범위를 근대적인 자기서사의 형성기인 일제 강점기로 한정한다. 이 시기의 한국여성들의 자기서사는 주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의해 쓰여졌고 신문보다는 잡지를 통해 출판이 되었다. 출판된 자기서사들은 글쓰기의 양식 면에서 볼 때 구술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쓰여진 글도 제법 많으나 발생론적으로 보면 전통여성 자기서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것이라기보다 서구의 자서전 (autobiography) 장르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주목할 것은 1930년대에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그 장르적 영향이 출판용 자기서사 전반에 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기서

사는 그 길이가 한두 쪽에서부터 서너 쪽에 이르는 짧은 글이라는 점이다.”

단편의 길이로만 출판이 되던 여성의 자기서사가 연재가 된다거나 단행본이라는 형식을 통해 출판이 되는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이다.” 1961년 8월 원로 여기자 최은희가 회고문 “청춘 회상기”를 잡지 『명랑』에 연재하였다. 1962년에는 김일엽의 회고록 『청춘을 불사르고』가 출판되었고<sup>3)</sup> 작가 최정희는 1962년에 자신이 썼던 글들을 모아 『젊은날의 증언』이라는 유사 자서전을 발간하였다.<sup>4)</sup> 작가 박화성도 1963년 4월부터 1964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자기의 삶을 『여원』지에 연재했고 이 연재물

1) 예외적인 단행본 자서전으로는, 崔承喜, 『私の自敘傳』(東京: 日本書莊, 1936); 최승희, 『최승희자서전』(이문당, 1937). 한글판자서전의 발행인은 최승희의 오빠인 최승일로 되어있다.

2) 1960년대에는 잡지에, 주로 여성잡지들에 연재되었지만 여성의 자기서사들은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일간신문에서도 연재가 되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나의 이력서〉 시리즈는 영화인 복혜숙 (1974.5.14-7.31; 55회), 정치가 박순천 (1974.11.16-1.18; 50회), 작가 모운숙 (1975.5.14 -7.13; 51회), 행정가 임영신 (1976.7.24-9.28; 40회) 등의 자기서사를 포함시켰고, 1980년대에도 임옥인 등의 여성작가를 포함시켰다.

단행본 자기서사의 예로는, 김활란, 『그 빛속의 작은 생명』(여원사, 1965); 황산덕, 『자화상』(신아출판사, 1966); 이숙중, 『길을 따라 걸었는데』(창원사, 1973); 송금선, 남해송금선박사회고록편집위원회 편 『거화취실: 남해송금선박사회고록』(덕성여자대학 출판부, 1978); 이방자,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이방자자서전』(한진출판사, 1980); 길정희, 『나의 자서전: 한국여자의학교육 회고』(이호출판사, 1981) 등 참조.

남성의 자기서사도 여성의 자기서사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거 단행본형식으로 출판되었는데, 회고록 발행의 시작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부터였고 여성들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출판량이 많다. 근대이후 출간된 전기, 자서전, 회고록의 목록은 임영태, 『한국현대사 관련 회고록·전기자료 목록』, 『역사와 현실』, 제3호(1990), pp.310-338 참조.

3) 『청춘을 불사르고』(문선각, 1962)는 본격적인 자서전 형식을 따른 일관된 자서전서는 아니었으나 60년 정도에 걸친 한 여성의 일생을 포괄하는 단편 자기서사가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묶여진 중 하나여서 여성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획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최정희, 『젊은날의 증언: 최정희 수필집』(육민사, 1962). “자화상” (1937년 봄), “소리” (1939.8;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시골서 살던 때” (1947.9), “문학적 자서” (1959.3), “나의 소녀시절” (1961.5), “나의 여학생시절” (1958.8), “중앙보육시절” (1960.8), “나의 기자시절” (1955.3), 등 단편 자기서사들을 저작 날짜가 아닌 삶의 체험시간 순으로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였다.

들은 추후에 단행본으로 묶여 『눈보라의 운하』라는 자서전이 되었다.<sup>5)</sup>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의 단편 자기서사는 196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행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1960년대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내내 전쟁과 사회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1960년대나 되어서야 회고에 적합한 문화적 정황이 준비되었을 것이라는 거시적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좀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1960년대쯤이 되면 일제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여성명사들이 회갑, 진갑 등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혹은 70년대에나 본격적인 여성 자서전이 나온다고 전제할 때,<sup>6)</sup> 일제 강점기에 나온 단편 자기서사를 단행본 자서전·회고록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짧은 여성 자기서사들은 단행본 길이 자서전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보아야 하는가? 모든 형성이 혹은 과도기에 일어난 일들은 형성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주의적으로 조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떤 현상이나 형식의 형성완료기에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차치하면 도

5) 『눈보라의 운하』(1964, 여원사)는 『여원』지 연재서사물을 모아 박화성의 회갑을 기해 출간이 되었는데, 자기서사 중 가장 일관된 기획으로 삶을 회고하는 저작에 속한다. 박화성의 자서전은 작가로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총 11장 중 해방전 시점이 295 페이지 즉 10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러한 초점으로 인해 그의 자서전은 작가로서의 성장소설로 읽힐 수 있다. 식민지시기의 삶을 회고의 대상으로 하여 1960년대에 나온 작가들의 자전서사 모음으로는, 그 외에도 노천명의 『나의 생활백서』, 모운숙의 『희상의 창가에서』, 박화성의 『추억의 파문』 등이 있다.

6) 단행본 길이의 자기서사는 주로 사회적으로 공인 여성들에게서 생산되었지만, 1980년대가 되면 출판사 뿌리깊은 나무 등의 기획으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삶도 자기서사의 대상이 되었다. 예. 이규숙,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 살』(뿌리깊은 나무, 1984); 김점호, 『베도 술한 베짜고, 발도 술한 발매고』(뿌리깊은 나무, 1990); 성춘식, 『이부자리 피이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뿌리깊은 나무, 1990). 구술자기서사의 초기형태로서 "연극대본을 위한 인터뷰"라는 부제의 황신덕의 구술록, 「나의 자전적 이야기」(1959.1.12) [『황신덕선생 유고집—무너지지 않는 집음』(추계 황신덕선생기념사업회, 1984), pp.149-172]가 있다.

입기, 과도기, 형성기 등에 있을 수 있는 역사적인 구체성과 특수성을 해당 장르의 완결성, 보편성, 일반성 등에 종속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근대 여성의 단편 자기서사들을 20세기 후반에 생산될 본격 자서전들의 과도기적 형태, 즉 부분적으로 결여된 완성이전의 형태라고 보기 보다, 그 시대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들에 근거하여 서구식 자서전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발달한 토착적 장르로 간주한다.

이 논문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의 단편 여성 자기서사들은 지금까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되지 못했고, 진지한 학적 조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성이라는 필자들의 성별과, 자전적인 삶이라는 글의 내용, 짧은 길이와 수필이라는 일반적인 형식에 대한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이 단편 자기서사들이야말로 한국의 근대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스스로 남긴 여성근대사적 자료들이라는 점이다. 이 글들은 전통시기 여성이 쓴 자기서사와 연관시켜 한국여성들의 삶과 글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기원한 문화적 산물인 자서전 장르가 수용 과정에서 갖게된 형식적 주제적 특성들로 인해,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전되는 자서전 연구, 근대성 연구, 여성글쓰기 연구 등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도전은 이 장르가 지닌 일종의 여성친화력 때문에 더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단행본 자서전을 한글로 출판한 남성 명사가 한 사람도 없는 반면,<sup>7)</sup> 무용가 최승희는 자서전을 두 권을 남겼고,<sup>8)</sup> 남성들의 단편 자기서사의 경우도 여타의 장르와는 달리 양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단편 자기서사를 잡지에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남성필자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연구가 채택한 정의의 자기서사—즉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7) 1929년에 친일자본가 박영철이 일어로 출판한 회고록 『五十年の回顧』(大阪屋號書店)은 일제 강점기 조선 남성이 출판한 드문 단행본 자기서사이다. 임영태, 앞의 글, p.320.

8) 각주 1 참조.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라는 의미에서의 자기서사—를 쓰는 남성필자는 줄어들고 주로 문학인들에 한정되는 반면, 여성필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의 여성 필자의 수가 남성 필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채택한 정의의 자기서사는 비례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집중적으로 출판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근대화가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남녀유별·남존여비의 원리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남성이 공적담론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 조선사회에서, 단행본이든 단편 서사이든 유독 자기서사 출판에 있어서 여성이 가시적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서전 장르가 서구와 일본에서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시작되고 생산되었음을 고려할 때,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여성 필자가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장르와 성별차이의 연관관계,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복합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조건인 출판이라는 근대적인 대량생산의 조건과 식민지적 근대라는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이 장르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어, 일제 강점기에 출판계에 등장한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개념화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의 제1절에서는 김원주의 자기서사의 한 예인 「自敘傳代로」에 집중하여 '자서전' (autobiography)이라는 번역용어와 장르를 둘러싼 일제 강점기 조선의 자기서사의 생산조건들과 가능성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에서 단편자서전이 근대조선의 잡지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제3절에서는 근대적 출판물로서 여성 자기서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형식적 주제적 특성들을 살펴본다.

## 2. 일제 강점기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

### 1) 김원주의 「自敍傳代로」를 통한 문제제기

단지 우연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일제 강점기의 조선에서는 생을 짧게 마감한 여성지식인들이 많았다. 여성 근대화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식민지적 근대의 증인으로서, 특히 오래 살았더라면 언젠가는 그 시대를 증거하며 긴 자기서사를 썼을 만한 여성문인들이 그러했다. 강경애(1907-1943), 백신애(1908-1939), 송계월(1910-1933)이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고, 노천명(1912-1957)도 50세가 안 되어 운명을 달리했다. 여성지식인의 수가 남성지식인의 수보다 절대적으로 적었던 시대였기에 그들이 남긴 공백은 더욱 컸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거대한 상실의 역사가 덮치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겪게된 분단과 그 뒤를 이은 분단체제의 역사로 인해, 이선희, 지하련 (본명 이현옥), 임순득 등의 문학가, 그리고 허정숙, 정철성, 정중명 등 솔한 운동가들이 남쪽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들의 사라짐은 그들에 의한 혹은 그들에 대한 글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기서사의 주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그들이 쓸 수 있었던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같이 잃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허가된 과거만이 기억되고 활자화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타인의 기억마저도 지워지고 억압되게 되었다. 분단의 여파로 인해 해방후의 삶의 기록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의 삶에 대한 앎과 서사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고 감추어지고 억제되었다는 것이 해방후 우리 역사와 서사의 특수성인 것이다.”

근대여성지식인들의 제1세대라 일컬을 수 있는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

9) 분단과 냉전체제 아래서 상실과 침묵과 구조적인 공백으로 점철된 우리 여성 글쓰기의 역사는 근대 초기에 활동했던 신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장수하여 다작을 남긴 과거의 제국 일본의 경우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48세로 세상을 떠나 일본의 근대여성 작가 중 상대적으로 단명하였다고 간주되는 하야시 후미코 (1903-1951)의 경우에도, 600,000부가 팔린 자전적인 일기체 소설 『放浪記』 등을 비롯하여 30,000 페이지 (278권의 책)의 글을 남겼다. Yikiko Tanaka, ed., *To Live and to Write: Selections by Japanese Women Writers 1913-1938* (Seattle: The Seal Press, 1987), p.99.

는 기록상 모두 1896년에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일엽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김원주(金元周 1896.4.28-1972.2.1)는 한창 활동할 나이에 불교에 귀의하여 세속을 등진 특이한 인생경로를 거쳤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태어나 활동하다 불우하게 세인의 망각 속에 생을 마감한 다른 제1세대 신여성 김명순(1896-c.1951)과 나혜석(1896-1946)과는 달리, 천수를 다하고 세인의 관심 속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말년에 받은 세상의 관심은 앞서 언급한 『청춘을 불사르고』 등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판한 자기서사의 덕이 크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남한에서 살았던 초기 여성 지식인들이 환갑, 진갑 등을 맞아, 그들의 자전기록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출판기획의 우선적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김원주였다.<sup>10)</sup> 따라서 김원주의 자기서사 발표의 궤적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추적하면 20세기 여성들의 자기서사 출판사의 중요한 국면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1920년에 출판된 여성잡지 『신여자』로 이미 유명해져 있었던 김일엽은, 1932년 『삼천리』 잡지사 대표이며 편집자인 김동환으로부터 그 해 3월호 『삼천리』잡지에 들어갈 “자서전”을 써달라는 청을 받는다. 김일엽은 원고 독촉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불멘 소리로 설명하며 채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지극히 짧은 글을 쓰고 거기에 “自敘傳 代로”라는 이색적인 제목을 붙여 원고를 넘긴다. 허두가 긴 데 비해 자기서사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연대기적 자기서사가 한 문장에 과도하게 축약되어 있어 파행적이라 간주될 만한 자기서사이지만, 그 허두까지 포함하여 이 글은 ‘자서전’이라는 용례와 개념, 출판분야에서 유통되던 자서전의 형식적 조건의 실제와 가능성 등, 일제 강점기에 출판된 여성 자기서사의 중요한 내용적 형식적 특징과 핵심적인 논

10) 『청춘을 불사르고』(1962) 이전에도 회고록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 3)이 출간된 바 있다. 두 책의 출간 뒤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 휘문출판사)가 또 한차례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1972년 김일엽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김일엽 유고수상록>이라는 부제를 가진 『청춘을 불사른 뒤』(1974, 인물연구소), 『김일엽 유문집』(1975, 인물연구소), 『수덕사의 노을』(1976, 범우사), 또 다른 수상록으로 『청춘을 영원하게』(1977, 인물연구소), 등이 출간되었다.



쟁거리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응축해내고 있다. 여기 전문을 인용한다.

파인 선생—

선생의 請은 좀더 정성스럽게 늦겨져서 좀처럼 거절할수 업시 생각되었으나 요전 말씀은 엇재 흘녀 듯고 잇섯습니다.

그런데 來日도설 모레는 정말 설날이라니 남들 갖치 차리지는 안치만 그래도 무슨 붓침질도 좀 하여야겟고 고깃점이라도 쟁여야겟고 남편의 하다가둔 저고리도 맞쳐야겟는데 엇저자고 來日아츨 차츨 原稿를 지금 기별함닛가 自敍傳이요 쓸資格이나 때가 잇는것도 안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自敍傳 갖흔 것을 무엇에 쓰게요

平凡하고 보잘 것 업는 內容밧게 적을것이 업는 것을—남보다 좀 다르다면 5代獨子の 無男獨女로 早失父母 하니만큼 외로운 身勢이요 離婚과 戀愛사건으로 세상 사람에게 욕설과 批難을 밧은것과 허풍선이의 新女子라는 別名 隨筆 수십편 掌篇이랄지 短篇이랄지의 조각 소설 몇개로 女流文士 라는 일홈을 드렸을뿐 세상에 도움과 흥미를 끌—아모것도 업는 걸이요.<sup>11)</sup>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길이의 이 장편(掌編)서사를 통해 우리는 우선, 자기서사가 독립적으로 출판되는 것이 아니라 잡지라는 출판매체에 의존하여 출판되기에 발생한 현상을 읽어 낼 수 있다. 첫째, 〈자서전〉이라는 용어를 지면에 등장시킨 주체가 글쓴이가 아니라 잡지를 주관하고 자서전 기획을 주관한 편집인 김동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 기획에 붙여진 ‘자서전’이란 용어가 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는 단행본 자서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와는 상관없이 글의 종류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자서전’이라는 범주로 종합잡지의 지면에 출판되는 글들은 연재의 형식을 밧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지면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생긴 「自敍傳 代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글의 길이가

11) 金一葉, 「自敍傳代로」, 『삼천리』 4.3 (1932.3), p.104. 근대 출판계의 형성기의 지면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본문을 현대어로 고치지 않고 철자법도 당시 출판된 그대로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自敍傳 代로」로 명기.

다. 물론 마감시간이라는 시간적 필요에서도 단편—보다 정확히 말하면 장편(掌編)—이 된 면도 있겠으나, 청탁 때부터 이미 한정된 길이에 삶의 전체성을 담아내야 하는 출판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서전’ 장르에 걸맞는 상당한 삶의 기간을 고작해야 두세 쪽 정도에 함축시켜야 할 때, 본격적인 자서전 장르 형식에 모종의 변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김일엽이 선택한 양식적 적용은 열거형 축약형 서술이다. 당시 잡지의 출판관례를 보건대 원고의 길이가 현재의 것보다는 한두 쪽 정도 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생부터 공적활동에 이르는 삶의 주요계제들을 파격적으로 단 한 문장에 집약적으로 열거했다. 열거된 내용은 출생과정의 중요한 특성과 친족관계 (“5代獨子の 無男獨女로 早失父母”), 여성으로서의 성장과 이성관계 및 결혼 (“離婚과 戀愛사건으로 세상 사람에게 욕설과 批難을 受은것”), 근대와 전통사이의 알력 속에서 근대여성으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취급 (“허풍선이의 新女子”), 문학가로서의 길 (“隨筆 수십편 掌篇이랄지 短篇이랄지의 조각 소설 몇개로 女流文士 라는 일흔을 드렸을뿐”) 등이다. 이 열거된 이정표들은 본격 자서전으로 만들어 졌다면 각각 개별꼭지를 이룰 만한 주제이며 제목들이다. 본격적인 장편 자서전에 담겨질 요소들이 단편적 형식 속에 집약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단편 자기서사 양식을 과연 장편 자서전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단편소설을 부풀리면 장편소설이 되고 장편소설을 줄이면 단편소설이 된다는 주장이 각각의 장르적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듯이, 단편 자기서사와 장편 자서전 사이에는 소설의 경우처럼 확실한 경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양식적 경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sup>12)</sup> 실제로 「自敘傳 代로」의 특성들은 자서전 장르의 본질적 특징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먼저 언급된 삶의 내용의 사실성 혹은 진실성에 대한 전체에 대해 그러하

12)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여성의 단편 자기서사와 1960년대 이후 생산된 장편 자기서사 사이의 차이점은 두 시기의 각기 다른 출판조건과 독자층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별도의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다. 김원주가 묘사하는 자신의 삶의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열거된 자신의 모습은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이나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고백체 자서전 전통에서 보듯 자신이 바라본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자기의 모습이다. 게다가 세상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짐작되는 이미지들 중에서도 부정적 것들만이 주로 추려져 있다.<sup>13)</sup> 좀더 특기할 만한 것은, 자신을 향해 <세상>이 발화한 <욕설>과 <비난>과 <별명>과 <일홍>들을 전달하면서도, 저자는 그것으로 그칠 뿐 그와 상처될 법한 자기 쪽의 진실에 대해 아무런 변명없이 철저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 침묵은 저자의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고도의 수사적 전략이다. 바로 이 침묵을 통해, <세상>이 그려준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이 경험한 것 중 전자만을 보여주고 후자를 감춤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으로 두 가지 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다.

그러나 <세상>의 편파적 시선의 가능성을 문제화시키고 자신의 진실을 변호한다는 점에서 자서전 전통의 핵심에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엽의 글에서는 자서전의 공식대로 저자가 서술자가 되고 또 일인칭 주인공이 되어 있다.<sup>14)</sup> 그리고 실제 살아낸 삶을 하나의 전체로 되돌아보며 개인사의 각 시기 즉, 출생, 연애 및 결혼, 공인으로서의 작가 경험 등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로>라는 제목을 쓴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김일엽은 자서전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자서전의 유의성을 암묵적 전제로 한 뒤, 자신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세상에 무의한 것임을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자서전의 일반 범주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김일엽의 글은 자서전의 전통에서 일면 벗어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연히 그 전통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자기 부정

13) 주문장의 구조적 형식 자체가 <욕설과 批難>을 받은 것, <허풍선이의 新女子라는 別名>을 들은 것, <조각 소설 몇개로 女流文士 라는 일홍>을 들은 것 등, <세상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고 본인이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수동형 문구이다.

14) 저자와 서술자와 주인공의 동일성은 자서전 장르의 절대적 조건이다. Philippe Lejeune, "The Autobiographical Contract," *French Literary Theory*, edited by Tzvetan Todoro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193.

적, 이중적 성격이 이 글을 역설적이게도 일제 강점기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의 원형적 위치에 놓이게 한다. 당시에 출판된 많은 자기서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自敘傳 代로」가 자서전이라는 장르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좀더 상세히 풀어보기 위해 좀더 면밀히 텍스트를 읽어 보도록 하겠다. 김일엽은 지나가는 말로 <쓸자격이나 때>를 언급함으로써,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저자의 자격과 저작시기의 문제를 가볍게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김일엽에게 일으킨 불편함이다. 그는 “나의 自敘傳 갖흔 것을 무엇에 쓰게요,” “세상에 도움과 흥미를 끌 아모것도 업는 걸이요,” “平凡하고 보잘 것 업는 內容맞게 적을것이 업는 것을” 등의 문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심리적 불편함을 되뇌인다. 이 불편함은 형식으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 형식에 담기는 삶의 권위에 대한 일반적 기대치와 그 글에 담길 내용으로서의 자기의 삶 사이에 느껴진 괴리감이다.<sup>15)</sup> 주인공과 서술자가 작가와 동일할 필요가 없는 창작작품들과는 달리, 저자와 주인공과 서술자가 동일한 자서전 장르의 경우에는, 서사와 그 권위의 원천이 되는 저자의 삶의 내용에 대해 특정한 기대치가 상정되어 있었다. 이미 출판계에서 팔목할 만한 공인이 되어 있던 김일엽 같은 명사도 자서전이라는 형식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글의 형식으로서 자서전이 당시 조선의 여성계에 토착화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김일엽의 글에도 자기서사의 용도와 목적에 관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비범하고 대단한 삶의 내용이 있어

15) 김일엽이 자서전이라는 형식에 대해 내보인 불편함은 남성공인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된다. 최린의 예를 들어보자. 1929년 『삼천리』 제2호에 자전적인 글을 쓰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덧붙임을 붙였다. “대개 自敘傳이나 自畫像가튼 자기의 과거 현재를 서술하는 뜻은 오로지 자기의 행적이 后人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 점이 잇서야 할 터인데 날까지 평범한 과거를 가진 記述을 쓴은 붓그럽다. 오직 몇해 뒤에 自傳을 쓰는 날이 잇다면 그때까지 충실한 활동을 하여 풍부한 내용이 잇게 하기를 스스로 期할 따름이다.” 최린, 「自畫像: 波瀾重疊五十年間」, 『삼천리』 1.2 (1929. 9), p.32.

야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시기 이후이어야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기여하는 면 (<세상>에 <도움과 흥미>를 주기)이 있기만 하다면 누구나 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쓸 수 있다는 견해이다. 김일엽은 이 중 딱히 어느 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자신에게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욕설>과 <비난>과 <별명>과 <일흔> 밖에 없다고 자기 경험의 무용론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그 내용을 발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삶이 독자들에게 <도움과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듯이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도움과 흥미>라는 구절이다. 일제 강점기에 출판된 여성의 자기서사는 저자 자신의 저술욕구에 무게가 놓여져 있다기보다 그 장르가 독자 대중에게 주는 영향에 더 무게가 가 있다. 출판업자들이 자기서사를 선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출판하고자 한 데에는 독자의 수요와 일반대중의 계몽의 필요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인구비례로 볼 때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근대성을 체화한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극소수였다. 제도교육이 여자들에게 개방되기는 하였으나 여성으로서 근대를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구체적 지침을 줄 교과서나 학습시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근대 여성의 삶의 전범을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웠을 시기에,<sup>16)</sup> 근대적인 삶을 남보다 먼저 맛보고 더구나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삶의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 교육적 측면은 대중적 흥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의 편집자나 기자들은 근대의 문지방을 삶으로 넘어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출판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로서의 '자서전' 양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여성의 근대

16) 1930년대 어린 소녀가 여성성의 전범을 찾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과제들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재현한 자기서사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이 있다. 자세한 분석은 줄고, 「〈엄마의 말뚝 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제9집(1996), pp.118-139.

자기서사 연구의 하나의 문제축을 이룬다고 한다면, 출판물 일반에 미치는 텍스트 외적인 정치적 문화적 맥락(context) 또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축을 형성한다. 여기서 텍스트 외적인 맥락이란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 조선의 출판물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일제의 출판물검열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계 및 사회전체를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힘들을 말한다. 자기서사는 외적 그리고 내적 검열에 다른 어떤 장르보다 민감한 장르이다.<sup>17)</sup> 자기서사는 체험된 사실을 소재로 하여 모든 서사내용의 책임을 작가가 져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검열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김원주의 삶에는 당대 식민지의 현실과 관련하여 조명되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잡지 『신여자』의 발행인, 편집인으로서의 김원주의 공식적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남자와의 결합과 그 결합에서 생긴 아들의 존재이다. 첫째 경우는 김원주가 『신여자』를 창간할 당시 발행인과 편집인의 공적인 직함을 외국인에게 이양을 한 사건에 기인한다. 『신여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된 조선 여성에 의한 조선 여성을 위한 최초의 여성지였다.<sup>18)</sup> 이 혁신적인 잡지를 창간하고 주간하고 편집한 여성이 김원주라는 사실은 당시 장안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sup>19)</sup> 그러나 『신여자』의 발행기록에 따르면 잡지의 편집인과 발행인은 <썰닝쓰夫人>으로 되어있다.<sup>20)</sup> 다시말해 편집인이라는 기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17) 외적 검열이란 일제가 출판물에 가한 제도적 검열을 가리키고, 내적 검열이란 일제의 검열의 경우에 대비해서든 조선사회 내부의 거부반응을 의식해서든 조선의 작가들이나 출판인들이 자기보호를 위해 출판물에 스스로 가한 검열을 말한다.

18) "우리 新女子社는, 尙書梁雨村 先生 한분 外에는 全部 우리女子로 組織되야 事務를 보고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매호마다 넣었다.

19) 『신여자』는 김원주의 남편이 발행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화사연구회 편, 『민족문화사연구』, 제9호(1996 상반기), p.88.

20) 『신여자』창간호(1920년 3월 10일), 제2호(1920년 4월 25일), 제3호(1920년 5월 31일), 제4호(1920년 6월 20일)에 모두 썰닝스 부인이 잡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썰닝스 부인은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수 및 부교장을 맡고 있고 후에 감리교 신

다. 그런데 **창간호**의 총독부 납본본에는 편집인의 명의를 김원주에서 <썰닝쓰夫人>으로 이전된 자국이 남아있다.<sup>21)</sup> 이 자국은 출판정보란에 나온 인쇄일자 1920년 3월 6일 이후, 즉 **창간호**를 다 만들고 출판물 담당 및 검열기관이던 조선 총독부 고등경찰과에 잡지를 납본하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원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명의를 외국인으로 바꾸어 출판법 대신 출판규칙을 적용받으려고 했을 때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sup>22)</sup> 그렇다면, 공식 출판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진 김원주가 그 이후 자신을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까? 예컨대 만약 “**自敘傳代**”와 같은 자기서사에 자신의 삶의 세부사항을 논할 수 있을 만한 여유와 길이가 주어졌더라면, 『신여자』를 창간할 당시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논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일제의 검열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출판된 기록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드물지 않았지만, 일단 공식기록과 비공식 사실에 편차가 생겼을 경우 그 검열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편차를 공식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제도

---

학교 교장이 된 미국인 선교사 Bliss W. Billings (1881-1869)의 부인인 Mrs. Billings이다. 빌링스에 관해서는 김승태, 박혜진 엮음, 『내한 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p.129. 『신여자』 창간호(1920.3)의 「창간사」와 바로 뒤를 이은 「신여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논함」의 집필자는 김원주으로 추측되는데, 이름을 명기하지 않아 출간결과만으로 보면 편집과 발행인의 글로 공식발표된 썰닝쓰 부인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제1호 이후 제4호에 이르기 발행인과 편집인은 계속 썰닝쓰 부인으로, 편집고문은 양우촌으로 명명되어 있다.

- 21) 총독부 납본본 마지막에 (p.65에 해당) 출판정보가 나오는데, 활자로 박혀진 글자들 위에 손으로 쓴 글자들이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워지기 이전 상태의 활자로 박혀진 글자들에 따르면, 『신여자』창간호 편집인은 김원주이고 발행인은 <썰닝쓰夫人>이다. 그러나 <편집인 김원주> 표기와 주소는 지워지고 그 대신 <썰닝쓰夫人>의 역할인 <발행인> 위에 <偏執(兼)>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지 않은 채 순글 그대로 첨가 등사됨으로써, 편집인도 <썰닝쓰夫人>으로 공식화하였다.
- 22) 1922년 1월에 창간된 『백조』의 경우도 제1호에는 亞扁薛羅(아펜젤러), 제2호와 제3호에는 썰닝쓰夫人으로부터 명의를 빌어 발행인으로 삼았다. 출판법이 아닌 출판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듯 이 외국인들의 이름 옆에 “미국인”이라고 국적을 명기하고 있다.

적으로 막혀있다고 봐야한다. 『신여자』의 편집인 명의변경 사건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측면은, 김원주의 내적 검열의 감각이 잡지를 직접 운영한 이후 상당히 예민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잡지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김원주가 피지배민족의 일원이기에 ‘공적’으로 겪어야 했던 내적 검열의 예라면, 피지배민족의 여성이면서 공인이었기에 ‘사적’으로 겪어야 했던 자기 검열의 필요도 있었다. 일본인 오다 세이조와의 연애와 그로 인해 태어난 아들 때문이었다.<sup>23)</sup> 김원주는 동시대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자기서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남긴 편이지만, 그의 어느 글도 오다 세이조와의 관계나 아들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다와 관계를 가질 무렵 김원주는 이 『신여자』의 창간 및 여성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정론으로 명실상부한 공인이 되어 있었다.<sup>24)</sup> 공적인 지위와 활동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한, 일본인과의 관계와 출산 사실이 식민지의 집단적 반일 민족주의 정서와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맞부딪쳐 일으킬 파문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식민지 시대 공적 담론 전반에 미친 이러한 복합적인 검열의 힘들이 여성의 자기서사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아니 미쳤을 리가 없다. 구체적으로 「自敘傳 代」와 같은 단편자기서사의 경우 저자가 피지배민족의 일원이었

23) 1921년 결혼의 파경을 맞고 『신여자』출판을 중단한 김원주는 제2차 일본유학을 시도 하였다. 이 2차 유학시절에 김원주는 큐슈제대 법학부에 재학중이던 일본의 명문가 장손인 오다 세이조를 만나 아들을 출산하였다. 김원주가 출산 후 조선에 귀국하면서 아들은 오다에게 맡겨졌었다. 자신의 집안에서 파문을 당한 오다는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명되어 조선에 오게 되는데, 아들을 친구의 집에 맡겨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자라게 하였다. 아들이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그를 조선왕실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에게 양자로 들여보내 화가수업을 닦게 하였다. 독일대사로 근무하다 독일에서 사망한 오다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김원주는 1920년대 후반 불교잡지에 관여하다가 출가를 하였다. 화가로서 일본과 조선,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아들 김태신도 1988년 출가하여 범명 일당으로 지내고 있다.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전2권 (한길사, 1991); —, 『어머니 당신이 그럽습니다』, 전2권 (문학파 의식, 2002); —, 「노스님의 사모곡」, 『우먼센스』(2002.9), pp.356-359.

24) 『신여자』 제4호 (1920.6)에 발표된 김원주의 대표적 정론 「먼저 현상을 타파하라」는 『폐허』 제2호 (1921.1)에 재수록되어 조선의 남성지식인들에게도 널리 소개가 되었다.



기에 서사의 표면에 나오지 않을 내용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적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자기서사 장르는 기억과 망각, 발화와 침묵, 포함과 배제, 보여줌과 감춤의 역학에 대단히 민감한 장르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여성자기서사 연구는 텍스트들이 생산되고 수용된 구체적인 출판 조건들에 주목하여 텍스트에 표현된 내용만큼이나 표현이 배제되거나 억제된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야할 방법론적인 필요가 있다. 장르로서의 자서전이 막 대중적인 기반을 얻기 시작한 발흥기, 즉 1930년 초반에 발표된 김일엽의 자기서사는 그 존재형식으로서의 짧은 길이, 공적 담론과 사적 진실 사이의 긴장관계, 자서전 저작의 자격요건, 독자와의 관계, 또한 성리학적 전통과 식민지검열제도하에서 겪는 내적, 외적 검열 과정 등, 근대 여성들의 자기 서사 연구의 주요논점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여성자기서사가 자리잡혀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2) 자서전수용과 식민지 출판물로서의 자기서사

서구에서 주목받는 자서전을 쓴 사람들은 주로 근대의 성립기에 철학, 역사, 문학,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었다.<sup>45)</sup> 문학가들은 종종 자신들의 삶과 글을 통일하여 자기서사를 소설화하였는데, 19세기 사실주의 소설가들은 특히 성장소설이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자전 문학을 이뤄냈다. 영국소설사에서 성장소설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제인 에어』(*Jane Eyre*)의 부제가 〈자서전 (An Autobiography)〉인 것을 보면 19세기 영국에서 자서전이라는 용어와 양식이 이미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립과 산업화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고조되었던 영국에서

25) 예를 들면 루소, 데이비드 흄, 존 스튜어트 밀, 벤자민 프랭클린, 스탕달, 샤토 브리앙, 베를리오즈, 아나톨 프랑스, 로망 롤랑, 앙드레 지드, 톨스토이, 고리키 등이 있다.

26) 샤훓 브론테가 커러 벨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제인 에어』는 작가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허구이지만, 자서전의 양식을 이용하여 주인공 개인의 성장을 추적하고 있다. *Jane Eyre: An Autobiography*, edited by Currer Bell, 3 vols. (London: Smith, Elder, and Co., Cornhill, 1847).

도, 여성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출판된다는 것은 19세기만 해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여성들이 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라는 명칭이 붙은 출판물은 출판의 형식이 대부분 단행본이었다.<sup>27)</sup> 이 점은 짧은 길이의 일제 강점기 우리의 근대여성 자기서사 형식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면 우리 근대문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본의 자서전 전통은 어떠하였는가?<sup>28)</sup>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근대적인 의미의 자서전은, 1887년에 번역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898년에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지의 자서전이 신문에 연재되었고 이듬해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sup>29)</sup> 20세기로 넘어서자 여성들도 자기서사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에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는가”라는 제호 아래 몇 명의 여성이 짧은 자기서사를 쓴 뒤, 1906년에는 여성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자서전, 사회주의자 후쿠다 히데코의 『내 인생의 반생기』가 출판되었다.<sup>30)</sup> 1931년에는 조선의 무정부주의자 박열과 함께 무정부주의의 노선을 고수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일기가 출판되었고, 1934년

27) 가장 대표적인 19세기 여성의 자서전으로는 1877년에 출판된 해리엇 마르티노의 자서전을 꼽을 수 있다. Harriet Martineau, *Harriet Martineau's Autobiography, with Memorials by Maria Weston Chapman*, 3 vols. (London: Smith, Elder, and Co., Cornhill, 1877); re-issued in facsimile (London: Virago Press, 1983).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의 자서전 전통에 대해서는 Linda H. Peterson, *Victorian Autobiography: The Tradition of Self-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28) “自傳”이라는 장르와 용어가 이미 동양문화권 안에 존재하였지만, 서구에서 비롯된 자서전이라는 용어와 장르가 일본어로 번역이 된 뒤부터는 일본 내에서도 “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적인 특성을 지닌 “자서전”을 지칭하게 되었다. 일본의 자서전 발달과정에 관해서는 Noboru Tomonari, “Autobiographies in Modern Japan: Self, Memory, and Social Change,” 박사학위 논문, Dep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1 참조. 특히 p.1, p.3, pp.13-84.

29) Noboru Tomonari, 앞글 “Autobiographies in Modern Japan,” p.1

30) Vera Mackie, *Creating Socialist Women in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50, p.2. 이 근대 최초의 일본 여성의 단행본 자서전은 후쿠자와 유키지가 자서전을 펴낸후 채 10년이 안되어 출판이 된 것이다.

에는 여성사업가 소마 고키가 회고록을 연재했으며, 1941년에는 여의사 요시오카 야요이가 자서전을 편찬했다.<sup>31)</sup> 회고록 외에도, 상당한 수의 여성 작가들이 자전소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엮어냈다.<sup>32)</sup>

일본에서 20세기 초엽부터 단행본 여성 자서전이 출간이 되고 사회주의 혹은 무정부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자기서사가 눈에 띄게 출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의 자기서사를 찾기 힘든 식민지조선의 상황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조선의 경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허정숙은 회고적 자기서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고, 주세죽, 조원숙, 심은숙 등 다른 좌익계 여성들 역시 자기서사를 출판하지 않았다. 정종명의 「투쟁, 빈궁, 고독의 반생」이 예외적인 사회주의 여성의 자기서사에 해당한다.<sup>33)</sup> 김활란 등 기독교계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들은 자기서사를

31) 메이지, 다이쇼, 쇼와 초기의 일본 여성들의 자전서사를 비롯한 저작활동에 관해서는 Rebecca Copeland, *Lost Leaves: Women Writers of Meiji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Livia Monnet, "In the Beginning Woman Was the Sun: Autobiographies of Modern Japanese Women Writers," *Japan Forum* 1, nos. 1-2 (1989): 55-75; 192-223.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일기의 영역본으로는 Fumiko Kaneko, *The Prison Memoirs of a Japanese Woman*, trans. Jean Inglis (Armonk: M.E. Sharpe, 1991)가 있다. 소마 고키의 회고록은 1999년에 요시오카 야요이의 자서전은 1998년에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Noboru Tomonari, 앞글 "Autobiographies in Modern Japan," pp.239-240).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일본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성 자서전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출판된 가토오 시즈에 (이시모토 시즈에 남작부인)의 『두 길을 바라보며』(*Facing Two Ways: The Story of My Life*) (1935)와 이시가가 이야코의 『성마른 파도』(*Restless Wave: An Autobiography*) (1940) 등이 그 대표작이다.

32) Joan E. Ericson, *Be a Woman: Hayashi Fumiko and Modern Japanese Women's Literature* (Honolulu: University Hawai'i Press, 1997), p.25.

33) 정종명, 「투쟁, 빈궁, 고독의 반생」, 『삼천리』1.2 (1929.9), p.35. 본격적인 단편서사는 아니지만 그에 가장 근사치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의 글로는, 정종명 (간호부출신)이 일종의 생활기록으로 쓴 「간호부생활」(『여자계』, 제2호 「1920.4」, pp.51-57)과 정칠성 (기생출신)의 「동무를 부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역시 운동가로」(『삼천리』(1929. 9)) 등이 있다. 193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운동가가 쓴 자기서사라 할지라도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예로는 김수임, 『斷崖古松의 半生記: 孤兒로 삼십년, 동생을 찾기까지』, 『조광』4.2 (1938.2), pp.320-330.

남긴 편이나,<sup>34)</sup> 애국부인회의 지도자로 투옥과 일경의 감시 경험이 심했던 김마리아는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았다. 요컨대 일제식민지 지배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철저히 비판하는 활동을 벌여온 여성운동가들로부터는 일제강점기 내내 자기서사가 출판되어 나오지 않았다. 식민지조선의 여성 자기서사에 나타난 정치적 활동서사 부재현상이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통해 출판허가제 및 원고검열제를 법제화한 식민지검열제도의 파생 효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절(節)의 출발점이다.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근대 잡지 지면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3.1운동의 여파로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활성화 되던 1920년대 초이다. 조선의 출판문화매체들이 누구의 자서전을 선택하여 소개하였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지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엿보게 해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단순한 언급이나 간단한 소개의 차원을 넘어, 자서전의 본문이 번역되고 출판되어 대중에게 읽혔다면, 그것은 그 수용문화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한국의 지성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개벽』지의 창간호(1920년 6월 발행) 및 초창기 호들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서전』과 장 자크 루소의 『참회록』 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족주의 의식과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노동운동이 고조되어가던 1920년 후반기가 되면 대세를 반영하듯 잡지들이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을 소개하기도 하고, 아시아 사회로도 눈을 돌려 중국의 손문의 자서전을 소개하기도 했다.<sup>35)</sup> 그러나 조선에서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연재된 자서전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자서전이다.<sup>36)</sup> 이 자서전을 연재한 매체는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였다.

34) 김활란, 「나의 教育 半生記」, 『조광』5.8(1939.8), pp.52-60.

35) 一開生/박달성, 「손문 자서전, 손문이 사선을 뛰어 넘든 이야기」, 『별건곤』2.1(1927.1), pp.10-13.

36) 『프랭클린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최연택, 김철호가 공역한 이 자서전은 1921년 11월 8일부터 1922년 1월 24일까지 스물 다섯 차례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신문이나 잡지에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대중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선의 출판계에서 특히 여성계에서 자서전을 통해 대중적인 호응을 크게 받은 인물은 헬렌 켈러(Helen Keller)였다. 그의 자서전 「나의 생애」(*The Story of My Life*, 1903)는 1910년대 말부터 『여자계』와 『신여성』 등 조선인이 발행하는 여성지를 통해 요약적 전기의 형식으로 소개되었다.<sup>37)</sup> 조선의 여성잡지들이 소개한 여성자서전이 시각장애와 말하기, 듣기의 삼중의 장애를 딛고 대학교육에까지 이른 한 젊은 여성의 자서전이라는 점은,<sup>38)</sup> 출가외인과 시집살이 제도 아래서 여성에게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존재로 석삼년을 살라던 여성 도덕율이나 여성을 눈 있어도 못보고 귀 있어도 못들으며 입 있어도 말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던 전통 가부장제의 남녀차별관과 함께 생각할 때 그 울림이 크다.

장애극복을 골자로 하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의 교훈이 여성근대화와 맞물린 계몽주의적 세계관과 공명관계에 있음은 분명하지만,<sup>39)</sup> 그 자서전이 일제의 문화정치 아래서 갖게된 대중성의 의의는 애국계몽기에 널리 읽혔던 『애국부인전』과 『라란부인전』 등의 여성전기물과 함께 고찰해야만 명확해진다. 『애국부인전』의 잔 다르크(Jeanne d'Arc)와 『라란부인전』의 롤랑

37) 1918년 9월에 동경에서 간행된 『여자계』 제3호는 헬렌 켈러의 사진을 표지에 넣고 “불행한 처지에 있다고 비판하는 자매여 나는 할수없다고 너머지는 자매여 니러나서 이 켈러양을 배호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축구하는 秋湖(전영택)의 글을 실었다. 秋湖, 「헬렌·켈러(傳記)」, 『여자계』, 제3호(1918.9), pp.53-58. 1924년에 발행된 『신여성』 8월호에는 「世界唯一의病身學者, 헬렌. 케라-女史: 눈멀고, 병어리고, 귀먹어리면서 일흠은 세계에 쉐치는 여류대학자」라는 전기가 실려있다. 『신여성』2.6 (1924), pp. 24-31. 번역본으로는, 헬렌 켈러, 「나의 생애」 『普聲』, 제2호 (1925.6).

38) 헬렌 켈러의 전기나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도 엘렌 케이나 콜론타이, 마가렛 생거 등 서구 여성운동가들의 이름과 활동이 대중 잡지 지면에 자주 오르내리곤 하였으나, 여성이 쓴 자서전이 잡지지면에 소개되거나 거론된 적은 거의 없었다. 자서전을 발간하였을 때 헬렌 켈러는 미국 레드클리프 대학의 재학생이었다.

39) 그런데 1925년에 「나의 생애」를 텍스트로 소개한 잡지 『보성』이 본래 남자청년들의 잡지라는 점은, 이 자서전의 내용이 남녀를 넘어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닌 것임을 방증해준다.

부인(Roland de la Platiere Marie Jeanne)은 영웅적 애국심과 적극적 정치참여로 인해 젊은이들의 전범일 수 있었다. 이 두 서적을 비롯하여 애국 계몽기에 널리 읽히던 많은 애국계몽서적들이 1909년 출판법 제정이후 식민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거나 내적 검열로 서고에서 사라졌던 것을 고려해보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 누렸던 합법적인 대중성은 교훈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내용은 배제한 그 안전수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주로 전기물로 혹은 요약되어 번안형식으로 소개되었고, 연재물로 번역된 적은 없었다. 연재의 형식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자서전은 1931년에 국내잡지에 발췌번역 연재된 간디의 자서전이다. 영국의 인도 통치와 인도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가 총독부 도서과 검열관들의 요주의 항목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간디의 자서전이 연재의 형식으로 한국대중에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동광』지에 3회째 연재되던 이 번역 자서전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3회로 도중에 중단이 된다.<sup>40)</sup> 그 후 3회 더 계속되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간디의 자서전 중에서 선택된 연재내용이 식민지배 상황이나 정치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간디의 성장서사라는 점은, 검열압박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일제강점기 자기서사 전반과 관련하여 연재형식을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이 형식이 식민지 상황에서는 출판주체에게 주던 위험부담 때문이다. 근대조선 남성의 자기서사 가운데에도 연재의 형식을 밝은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연재 성공률이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1920년대에 잡지들이 외국의 자서전을 소개하는 동안 조선 남성들의 회고담 역시 간간히 등장하

40) 『동광』은 1931년 1월호에 「진리탐구기: 성웅 간디 자서전기」를 실고 18호(1931.2), 19호(1931.3)까지 연재를 하다가 중단한 후 24호(1931.8)부터 26호(1931.10)까지 다시 3회에 걸쳐 연속 게재하였다. 중단되기 전 연재된 부분의 특징은 간디의 자서전 중 어린시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眞理探求紀: 印度聖雄간디自敘傳記」, 『동광』 3.1(1931.1), pp.12-15; 「간디 自敘傳: 소년시대의 간디」, 『동광』3.2(1931.2), pp.34-38; 「自敘: 聖雄 간디 懺悔錄」, 『동광』3.3(1931.3), pp.22-23 참조. 『동광』의 연재이전에 『삼천리』(8「1930.9」)가 먼저 간디의 영문 자서전을 소개하였다.

기 시작하였는데,<sup>41)</sup> 1929년에 7월 창간호를 낸 『삼천리』는 잡지의 창간호부터 '자서전' 기획을 추구하였고 게다가 연재까지 시도하였다.<sup>42)</sup> 이 잡지가 창간된 1929년 당시에는 그나마 20년대 초반에 창간되었던 종합잡지들—『개벽』, 『신생활』, 『신천지』, 『동명』, 『조선지광』, 『동광』(1926.6-1927.8; 1931.1-1932.11) 등이 원고난, 경영난, 검열난 등으로 모두 폐간 혹은 휴간한 뒤여서 『삼천리』지는 생존전략을 좀더 다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삼천리』가 자서전의 연재를 결정했을 때 독자를 계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일으킬 만한 국내의 자서전 저자로는, 특히 국내에 번역되거나 소개된 동양인의 자서전이 손문이나 간디의 자서전이 입을 미루어 볼 때,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인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들이 일제경찰의 요주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자서전 연재를 유지하기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이었다.<sup>43)</sup> 『삼천리』의 창간호에 연재되기 시작한 홍명희의 자서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예증해준다. 간디의 자서전이 그랬듯이, 홍명희의 자서전도 돌연 중단이 되는데, 그것은 신간회 운동과 관련하여 그가 구속·투옥되기 때문이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삼천리』의 자서전 연재기획이 홍명희의 것으로 마감을 하였다는 것이다.<sup>44)</sup> 홍명희의 자서

41) 양주동, 「수상록」, 『문예시대』 제1호(1926.11); 제2호(1927.1); 奇—「回顧四十年」, 『신민』26(1927.6); 윤치호, 「망명 10년이 학창생활: 학창생활의 추억(1)」, 『신생』5(1929.2); 최규동, 『書劍無言』40년: 30, 40 고개 넘던 실감, 『별건곤』18(1929) 등이 그 예이다.

42) 김동환이 주관한 잡지로, 1942년 1월 통권 152호를 내고 『대동아』로 체호를 변경하여 1943년 3월호까지 통권 3권을 더 내는 동안 14년을 존속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잡지 가운데 최장발행의 기록을 낸 대중종합잡지이다. 이렇게 장수를 누린 잡지니 만큼 대중의 요구와 검열의 압력 사이에서 친일협력까지 포함하여 살아남기 위한 현실균형각을 실효성있게 발휘했다.

43) 『삼천리』1930년 10월호는 허헌, 여운형, 홍명희, 김약수 등 투옥된 정치인사들의 옥중서한을 실고 있고(pp.14-17), 1931년 5월호는 법정에선 허헌 홍명희 라는 창랑객의 글을 실고 있다(p.14)

전 이후에도 『삼천리』는 최린, 송만갑, 여운형 등의 정치운동에 몸담은 사람들의 자기서사를 실게 되는데 그 글들은 모두 단편자기서사였다.

연재형식은 단편이상의 길이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출판통로였다.<sup>44)</sup> 자서전을 잡지에 연재형식으로 출판하는 경우 중편 내지 장편 자서전으로도 출판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치안방해〉나 〈풍기문란〉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연재는 선택하기 위험한 형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자서전을 출판할 만한 권위와 경력을 지녔다고 인정되던 남성 공인의 삶의 이야기는 사회와 정치 역사의 이야기와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따라서 검열의 부정적인 판정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검열관의 전편 삭제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특정 글뿐만 아니라 연재되는 글 전체에 자질이 생길 수 있었고,<sup>45)</sup> 홍명희의 자서전이 중단된 이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자기서사를 쓰는 저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글이 중단될 수도 있었다. 잡지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기에 재정난을 늘 고려해야 했던 출판계로서는 일제의 검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획을 하기에는 자체 생존의 위험부담이 너무 컸고, 저자들은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묘사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글의 내용을 선택하고 윤색시킬 필요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출판계의 사정은 일

44) 이 연재형식과 검열과의 관계는 홍명희의 자서전이 마지막으로 실리는 호가 되어버린 『삼천리』 제2호에도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홍명희 자서전말고도 제2호에는 삼일만세 운동의 진두에 섰던 최린의 자서전이 '자화상'이라는 명칭으로 게재가 되었는데, 독립 운동에 참가했던 여정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이십이행삭(二十二行削)"라는 검열자국이 증명하듯 검열관에 걸린 부분이 삭제되어 나왔다. "교장으로 10년을 잇다가 四十二才 때에 이몸을 3년간 獄窓에 빗그러매는 신세가 되었섯는 것이 다"라는 구절 바로 뒤에 삭제 표기가 나타난다. 최린, 「自畫像: 波瀾重疊五十年間」, 『삼천리』1.2 (1929. 9), p.32.

45) 단행본 단위의 산문이 연재를 거치지 않고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문학계에서만 보더라도 연재의 형식을 거치지 않은 장편소설이 단행본으로 출판된 최초의 예는 김남천의 『대하』로서 1939년에야 출판되었다.

46) 홍명희의 자서전 제1편이 출판된 『삼천리』의 창간호에서는 아홉 편의 글이 전부삭제의 판정을 받아 실리지 못했다.



제 강점기 조선남성의 자기서사가 단행본으로 나오는데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선의 근대여성 단편 자기서사는 근대남성 자기서사가 대면해있던 이러한 외적 혹은 내적 검열의 필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에 좀더 다양하게 실험될 수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 자기서사를 출판할 수 있던 여성들은 제도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근대성을 체화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글을 처음으로 실기 시작한 것이 『자선교육협회지』 등의 국내 근대 여성교육관계 기관지에서였고, 나혜석을 필두로 여성이 문사로서 필명을 내기 시작한 것이 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인 『학지광』과 『여자계』였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필진들이 모두 자기서사를 쓴 것은 아니었다. 출판용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가 나오기 전까지 여성의 삶에 대한 글들은 묘사적 담론보다는 당위적 주장을 담은 정론이 많았고, 여성문제의 정론 분야에서조차 여성필진보다는 남성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성들의 자기서사는 남성저자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장르이다. 여성들이 출판담론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가능해진 여러 가지 담론 중에서도 여성의 자기서사는 여성의 실제 삶에 기반한 존재론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로 살아낸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론속의 당위적 삶과도 구분되고 허구서사에 나오는 개연성의 삶과도 구분된다.

애국계몽기나 일제의 헌병경찰 정치 하에서 출간된 초기 잡지들에서는 여성들의 회고 서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sup>47)</sup> 이러한 사정은 1910년대 여성 독자들을 겨냥하여 출판된 잡지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sup>48)</sup> 동경에서 출판된 『여자계』,<sup>49)</sup> 1920년 1월에 발간된 『여자시론』,<sup>50)</sup> 1921년 7월에 발간된

47) 초기 잡지라 할 수 있는 『태극학보』, 『대한홍학보』, 『학지광』, 『청춘』, 『소년』, 『공도』 등에는 여성 필자가 거의 없다.

48) 『가정잡지』(1906년 9월 발간), 『우리의 가정』(1913년 12월 발간) 등 남성 편집자에 의해 남성 필진을 주로 출판된 여성 잡지에서는 여성의 자기서사를 찾을 수 없다.

49) 제2호로 (1918.3)부터 제6호 (1927.1)까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남성필진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당위서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0) 『여자시론』의 창간호에 여성의 일생을 다룬 글이 한 편 나오기는 하나 그 글은 전기이

『신가정』 창간호, 그리고 1922년 6월에 발간된 『부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sup>51)</sup> 그러나 여성이 편집하고 여성필자를 대거 출현시킨 잡지 『신여자』의 창간과 더불어 여성의 자기서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김원주가 “원주”라는 필명으로 창간호에 발표한 「어머니의 무덤」은 자신의 과거와 처녀시대를 자신의 어머니의 일생과 겹쳐 서술한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면서 전세대 여성이나 다른 여성들의 삶에 대한 회고를 병행 교차시켜 서술하는 자기서사의 원형을 보여준다.<sup>52)</sup> 이러한 자기서사를 필두로 『신여자』는 여성의 생활기록이나 체험기 등을 실기 시작하였고,<sup>53)</sup> 『개벽』의 자매지 『신여성』(『부인』잡지를 개제)이 발간되면서부터 여성의 회고담이 적지않게 잡지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 정치와 관계된 공적영역은 자기서사의 대상에서 확연히 제외 혹은 극소화되면서 공적인 영역이 전문적인 직업적인 자기서사로 축소되고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sup>54)</sup> 이러한 1930년대의 공적영역의 비정치적 전문화 경향은 1920년대 후반기에 보이던 수위높은 정치적 발언들의 담론화 경향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것이었다.<sup>55)</sup>

---

지 자기서사가 아니다. 아현동인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女傑의生涯」란 제목으로 1907년에 브러셀에 간호부학교를 세운 영국출신 〈녀걸(女傑)계우렐〉의 생애에 대해 썼다. pp.60-63.

51) 켈닝쓰 부인을 편집겸 발행인으로 하여 1921년 7월에 발행된 『신가정』은 1930년대에 발간된 동명의 잡지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창간호의 경우 여성필자들은 극소수이며 남성필진이 다수인데, 남성필자들은 주로 계몽·당위 서사를, 여성필자들은 허구 서사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광고에 나오는 제2호 목차에서도 비슷한 사정을 발견할 수 있다.

52) 원주, 「어머니의 무덤」, 『신여자』1.1 (1920.3), pp.23-25.

53) 예: 『신여자』 창간호의 「婚姻哀話: 犧牲된處女」, 제2호의 「獨身處女的生活」과 「看護婦生活」, 제3호의 「寄宿舍生活」, 제4호의 김편주, 「犧牲된一生: 靑孀의生活」.

54) 회고문들 중 문학분야의 문단 회고가 가장 높은 출판율을 보인다.

55) 한때 조선 공산당의 기관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지광』만 하더라도 “익명청년”이라고 호호막을 치면서 대표적인 자기서사 형식 중의 하나인 일기 형식을 이용해 쓴 「젊은 사회운동자의 일기」와 같은 글을 게재하곤 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과 1930년 초반의 좌익대량검거와 사상탄압이후에는 좌익경향 잡지 자체가 강제폐간 혹은 정치적 압력 아래 해산을 하였다. 예, 익명청년, 「젊은 사회운동자의 일기」, 『조선지광』7.7 (1927.7); 양심곡인, 「일기의 일절」, 『조선지광』9.2 (1928.2.1).

글쓰기 양식으로서의 자기서사가 여성들에게로 대거 확대된 것은, 이렇게 자기서사 내용의 비정치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였다. 1930년대 신문사들이 잡지를 내는 소위 '신문잡지시대'가 되면 『신여성』, 『신가정』, 『여성』, 『여인』 등의 여성잡지에서뿐만 아니라 『삼천리』, 『동광』, 『신동아』, 『별건곤』, 『조광』 등의 일반 대중잡지에서도 여성의 자기서사를 자주 게재하게 되었는데, 이 1930년대의 대중잡지들이야말로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여성 자기서사의 기반이었다.

### 3) 근대 여성 단편 자기서사의 특징

자기서사 혹은 자서전의 본질에 대해, 프랑스의 지적 전통에서는 주로 자기재현 (self-representation)으로 인식하고, 영국 전통에서는 자기해석 (self-interpretation)으로 인식한다고 한다.<sup>56)</sup> 그러나 이 상이한 두 지적 전통은 자기서사전통 일반에 있는 두 가지 주도적인 서사충동들을 가리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수입한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도, 자기재현과 자기해석의 두 가지 충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수입된 양식을 놓고 주어진 객관적 조건들에 부합하여 여러 가지 초벌 변용과 적응 시도들을 하던 시기니 만큼, 그리고 특히 서사거리에 대한 선별적 선택이 필수적이던 단편 형식의 자기서사에 대해서는, 쓰여진 글이 재현이나 해석이나 하는 질문보다는 삶의 어떤 면이 자기서사의 대상으로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는 살아야 할 근대적인 삶의 내용과 형식은 계속 두루 소개되고 있었지만 여성의 근대적인 삶이란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시기이며, 자서전의 형식은 널리 소개되었지만 실제 본격적인 책 분량의 자서전은 쓰여지지 않고 있는 시기였다. 삶과 글 두 면에서 '근대적'이라는 '새로운' 형식들이 실험적

56) 루소의 『고백록 (Confessions)』과 존 버넌 (John Bunyan)의 『넘치는 은총 (Grace Abounding)』이 각각의 두 전통의 전형들이다. Linda H. Peterson, *Victorian Autobiography: The Tradition of Self-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3.

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시기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미정착단계에서 자서전이라는 이식장르에 대해 잡지 출판인 및 여성필자들이 어떠한 주체적 대응을 해나갔는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보통의 자기서사들은 저자 자신이 직접 쓴 경우이지만, 기자들이 유명한 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자기서사를 받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sup>57)</sup> 이러한 인터뷰 정리문들은 글을 구성하는 질문들이나 그 내용의 구성 자체가 기자나 편집인 측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순수한 형식의 자기서사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설사 저자가 직접 쓴 것이라 하더라도 식민지시기에 출판된 단편 자기서사들은 그 골격과 기본적인 착상 등이 잡지의 편집기획에 따라 구상되었기 때문에 저자 한 사람만의 서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서사양식이 조선의 출판계와 독서계 실정에 맞게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여서, 자기서사의 필자, 자기서사의 길이, 현안 문제, 등등이 출판매체인 잡지의 특정 편집의도에 의거하여 결정되었고, 서사의 내용 자체도 편집인이나 기자의 요구조건에 상당히 부응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출판된 자기 서사들이 점차 관행을 축적하여 쌓여 나름대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여갔다.<sup>58)</sup> 따라서 식민지시기 한국의 자기서사들은, 서구의 자기서사 연구자들이 그 장르에 대해 당연히 가정하는 저자 개인의 개별성, 독립성, 자율성과는 상당히 다른,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서

57) 1935년 『개벽』신년호에 실린 김원주의 삶에 대한 기사, 「신여성에서 여승이 되기까지」는, 김원주의 자기서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해전에 『개벽』지 기자가 선학원에서 김원주를 회견한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허영숙의 「나의 자서전: 일대의 문호 춘원의 애인」이라는 글을 보더라도, 글의 제목을 〈자서전〉이라 붙였고 시종일관 허영숙의 구술체의 말투로 서사가 일관되게 진행되지만, 글의 말미에 가면 〈文責在記者〉라 하여 글의 책임소재를 기자의 것으로 밝히고 있다. 허영숙, 「나의 자서전: 일대의 문호 춘원의 애인」, 『여성』(1939. 2), p.28.

58) 잡지의 특정한 기획 초점 아래 출판된 자기서사의 양식은 일본의 잡지 출판계로부터 직수입해온 편집기획들이었는데, 글의 범주적 명칭들은 그 강조점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었다. 회고를 강조한 경우, 회고, 회고기, 회고록, 회상기, 추상기, 수상기, 등으로 불렀고, 수기, 고백, 고백록으로도 불리었고,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을 강조한 경우 자서, 자전, 자전기, 자화상, 자화, 자서전 등으로 불렀다.

사를 구성하는 기본 문제의식 자체가 저자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혹은 집단적인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사적인 장르가 될 수 있는 자기서사 장르가 역설적으로 대단히 공적인 장르로 토착화하였다. 일제 강점기 자기서사가 가진 이 공적 장르로서의 특징은 이후 한국의 자서전 회고록 전통의 주요 특징을 형성한다.

일제강점기의 자기서사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형태의 형식이 있다. 삶을 전체로서 보고 연대기적으로 쓰는 자서전적 서사가 한 흐름이라면, 삶의 진실을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자전문학이 다른 하나의 흐름이고,<sup>59)</sup> 특정한 시점에서 가동되는 자신의 내면이나 특정한 일화, 또는 나날의 삶을 기록하는 연수필적 스케치가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한다.<sup>60)</sup> 그러나 세 흐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잡지의 편집자들의 요구가 분명한 경우나 아니냐에 따라 윤곽이 뚜렷할 수도 희미할 수도 있었고, 분명한 경우라도 세 흐름 중 한 두 흐름이 섞이거나 겹치는 경우도 많다. 자서전적 서사의 경우는 연수필적 스케치와 작자와 서술자와 주인공의 동일성과 실제

59) 주요 예로는, 김명순, (실명자전소설) 「탄실이와 주영이」(1924), 「시로된 반생기」(1938); 나혜석, (유실된 '자서전') 『김명에』(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사, 1974), p.25;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 2001), p.231).

60) 신동아사(『신가정』) 부인 기자 김자혜의 연수필서사를 한 예로 들면, 「오월의 밤」, 『신동아』(1932.5); 「어머니된 죄」, 『신가정』(1933.1); 「갈피일흔 일기」, 『삼천리』(1933.5); 「느저린 편지답장」, 『신여성』(1933.7); 「여인자화상-뺨에 꾸보나 잇섯더면」, 『삼천리』; 「병상잡기」, 『신가정』(1934.5); 「빨래터에 끼쳐둔 발자욱-곰진내」, 『신가정』(1934.6); 「病席의 생일 아침」, 『신가정』(1934.1). 연수필 형식은 일기체와 편지체 양식을 통해 사적 형식으로 분화되어갔다.

(1) 편지체로 쓴 서사의 예: 최정희, 「어머님전상서」, 『신가정』(1933.3); 나혜석, 「연필로 쓴 편지」, 『신동아』(1933.10); 노천명, 「어머님 전상서」, 『여성』(1938.7); 이현옥 「지하련」, 「편지」, 『삼천리』(1940.4); 이선희, 「천명에게」, 『여성』(1940.10).

(2) 발표용 일기의 예: 나혜석, 「4년 전의 일기 중에서」, 『여자계』(1920.3)/『신여성』(1926.6); 최정희, 「정적기」, 『삼천리문학』(1938.1); 『삼천리』의 1939년 1월호 「최의순, 황신덕, 윤성상, 허영숙의 일기」; 이현옥 「지하련」, 「일기」, 『여성』(1940.10).

(3) 실제 일기의 예: 「사모일기」, 김경채 (백철의 아내) 유고 (1938 1월 1일 - 3월 15일), 『여성』(1939. 10-12).

로 체험된 삶을 서사의 기반으로 한다는 정체성이 가장 명확한 것인데, 근대조선의 경우는 단편 자기서사가 주종을 이루게 됨으로써 세 번째 흐름인 연수필적 스케치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단편 자기서사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 흐름 중 우선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쓰인 자서전적 자기서사에 초점을 두어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근대여성들이 쓴 자서전적 자기서사에 두드러지는 두 가지 형식적 특성이 있다. 첫째는 서구식 자서전 개념에 걸맞지 않는 짧은 길이였다. 전통시기의 여성서사는, 가사류를 빼고 길이에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길이는 주로 잡지매체를 통해 출판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요구에 따라, 한두 페이지부터 서너 페이지까지 길이가 일정하게 짧게 책정되어 있었다.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포괄하는 삶의 길이가 상당한데 출판지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한정된 길이를 나타내 주는 말들이 개념어에 붙여 글의 범주나 제목을 만들곤 하였다. 이러한 범주의 명칭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자기서사를 나타내는 말, 즉, 자서, 자전, 자전기, 자화상, 자화, 자서전 등의 중심어와 짧은 서사의 길이를 나타내는 한정어로 구성되었다.

短篇自敘傳=短篇+自敘傳/ 掌篇自敘傳 掌篇+自敘傳/自敘 한 토막= 自敘+한 토막

斷想=斷+想/ 小傳=小+傳/ 自敘小傳=自敘+小傳<sup>61)</sup>

이것은 주로 잡지 편집인이 주도가 되어 기존의 장르를 놓고 구체적인 글의 제목이나 특집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자기화·토착화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61) 이선희, 「단편자서전」, 『삼천리문학』(1938.1); 「기획」 「여류작가의 掌篇자서전」, 『삼천리』(1941.4); 최정희, 「자서 한 토막」, 『삼천리』(1941.4); 노천명, 「斷想(小傳)」, 『삼천리』; 「自敘小傳」(강경애, 장덕조, 이선희, 박화성, 최정희, 노천명, 백신애), 『여류단편결작집』(조광사, 1939).

둘째,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서구의 남성의 근대 자기서사인 경우, 그리고 전통 시기 여성 자기서사의 경우에도,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필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회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근대시기에 자기서사의 주체가 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렸다.<sup>62)</sup>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 <자기서사>라 할 때,<sup>63)</sup> 근대여성 자기서사 주체의 나이가 적다는 것은 회고될 <일생>의 시간적 길이가 짧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서사 출판물에 책정된 길이가 짧고 서사주체들이 서구의 보편적인 서사주체들보다 나이가 적을 때, <특정시점까지의 삶>이라는 회고 대상으로서의 삶의 길이에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회고의 대상으로서의 삶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인식이 자기서사의 관행을 단편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한국여성의 근대 자기서사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게 나오는 것이 소녀 시절, 처녀시절, 학창시절이라는 명명되는 개인형성기이다.<sup>64)</sup> 이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새로운 교육이다. 전통편에서 남성의 자기서사는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 혹은 공적이고도 사회적인 정체성을 중시하고 그 점에서 구조적으로 공적, 사회적 정체성을 영위할 수 없었던 여성의 자기서사와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sup>65)</sup> 근대의 한국여성의 자기서사는 제도교육과 직업과 관계된 삶의 기록을 서사의 주제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공적, 사회적 정체성이 여성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62) 헬렌 켈러가 『나의 생애』(1903)를 발간하였을 때 그의 나이가 23세요 젊은 대학생이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의 나이가 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자기서사의 독자층도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많다.

63)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호(2002), pp.327-328.

64) 예: 김원주(源珠) 「기자」, 「소녀시대의 꿈터 수파치는 진남포」, 『삼천리』(1931.12); 최의순, 「나의 처녀시대」, 『삼천리』(1931.12); 이숙종(誠信宗政여학교장), 「옛날의 학창을 찾아」, 『삼천리』(1935.7).

65)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호(2002), p.333.

러한 공적, 사회적 정체성은 곧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공간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공간을 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것이 준비과정으로서의 근대교육이었다. 20세기 초반의 조선의 여성의 근대교육은 단순히 앎만을 전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공간적, 시간적 열림이었다.

이 공간적 시간적 열림은 학교라는 제도로 인해 가능해진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학교를 다니게 됨으로써 여성에게 일찍 강요되던 결혼 시기가 유보가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 전통시대에는 결혼을 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따라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섰었지만, 근대가 되면 아이와 어른 중간에 소녀 혹은 처녀시절이라는 중간단계가 새로이 개념화된다. 성장기의 여자는 딸의 위치와 미래의 아내의 위치 사이에 제3의 시기를 갖게 되고 결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상성과 주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자본주의와 제반 근대제도가 가장 일찍 발달된 영국에서도 '소녀시기'(girlhood)라는 특정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학교 제도교육이 여자아이들에게 확대된 19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sup>66)</sup> 학교경험은 시간적인 새로움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새로움을 주게 된다. 전통시기에 여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결혼이었다면, 근대여성들에게는 외국유학은 물론이요 중·고등교육 이수가 집과 고향을 떠나는 사건을 동반할 경우가 많았다. 집을 떠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고 과거의 여성의 전범이 아닌 새로운 여성의 전범을 체화하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집밖을 떠나보지 못하고 살아온 전시대 여성들의 삶과 비교할 때 여성성의 새로운 계기임에 틀림이 없었다.<sup>67)</sup> 집단적으로 지속적인 회고와 해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일제 강점기에 겪은 여성의 근대적 자아형성과정

66) 19세기 영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소녀' 혹은 '소녀시대'의 개념과 제반 문화에 대해서는 Sally Mitchell, *The New Girl: Girls' Culture in England, 1880-191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67) 유학생활에 대한 자기서사의 예로는, 김신실, 「구미유학10년간」, 『삼천리』(1932.1); 최영숙, 「서전대학생활」, 『삼천리』(1932.1); 『신여성』(1933.2); 나혜석, 「나의 동경 여자미술학교시대」, 『삼천리』(1937.5).



은 각 개별 여성 존재에 깊은 각인이 되어 있는 듯하다. 소녀시절 혹은 처녀 시절의 특화된 위치는 일제강점기의 자기서사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출판된 여성 자서전과 여타의 여성 자기서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sup>68)</sup>

자기서사의 출판이 활성화되고 체험회고담에 대한 잡지사의 기획이 다양해짐에 따라, 삶 전체가 기억되어 서사되기보다는 삶의 특정 부분만이 선택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일정한 기간동안의 삶의 추억만을 담는 소규모 회고형식의 장르로 발전해갔다. 60년 정도의 시간을 삶 전체의 시간으로 전제하여, “반생기” 혹은 “반의 반생기”라는 자기서사의 제목이 빈번히 채택되었고<sup>69)</sup> 기계적인 시간단위로 10년, 15년, 20년 등을 잡기도 했으며,<sup>70)</sup> 특정한 과거의 한 시기나 정점만을 서술하기도 하고<sup>71)</sup> 모종의 종착점이나 완성점을 향해 도달해가는 성장서사가 있는가 하면,<sup>72)</sup> 그 해소기나 또 다른 종착점을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sup>73)</sup> 회고담의 확산과

68) 『여성동아』에 연재된 (1971.12-1972.6) 김원주의 자전소설 『진리를 모릅니다』에는 ‘자전소설’이라는 표제를 붙여있다. 이 자전소설은 김원주의 후기작에 속하는데 주목할 점은 작품의 내용이 주로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김원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박화성의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1964, 여원사)에서도 총 11장중 해방 전 시간대가 10장, 295페이지에 걸쳐 있다. 이숙중 (교육가), 송금선 (교육가), 길정희 (의사), 황신덕 (교육가)등이 출판한 자기서사에도 20세기 초반기 젊은 시절의 체험에 대한 서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69) 김활란, 「나의 敎育 半生記」, 『조광』5.8 (1939.8), pp.52-60; 진수방 (무용가), 「半의 半生記」, 『여성』1.1 (1936.4), pp.18-19.

70) 김태영, 「나의俳優生活十年記: 情熱的인 世界」, 『삼천리』13.1(1941.1), pp.226-228; 최승희, 「舞踊十五年」, 『조광』6.1(1940.1), pp.300-313; 배구자, 「舞臺生活二十年: 만허웃고, 만허울든 지난날의回想」, 『삼천리』7.11(1935.12), pp.128-133; 『신동아』3.1(1933.1)의 기획: 황애시덕, 「港口로 들어온 배: 나의十年間生活」, pp.78-80; 나혜석, 「畫家로 어머니로: 나의十年間生活」, pp.83-86; 최정희, 「直線, 單線의 기록: 나의十年間生活」, pp.86-89.

71) 김복진, 「나의 첫舞臺」, 『신동아』6.5(1936.5), pp.291-294; 김소영, 「‘그녀와 나’ 內地攝影日記」, 『삼천리』13.12 (1941.12), pp.86-89.

72) 정찬영, 「화가가 되기까지의 고심기」, 『신가정』(1936.1), pp.86-89.

73) 김금자, 「여류선수전락기: 참담한 허영녀의 말로: 전조선탁수서수의 화형으로 화류계의 회롱물이 되어 참회한다」, 『여성』(1936.9), pp.38-41.

더불어 시간연속체가 어린시절 혹은 소녀시대, 처녀시대, 학창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삶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유학생생활, 직업생활, 결혼생활 등 개념적으로 구획이 확대되어 갔다.

근대여성 단편자기서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의미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전문직업을 비롯한 공적 활동영역을 초점으로 엮어진 자기서사가 많다는 사실이다. 기자, 가수, 기업사장, 배우, 무용가, 비행사, 자동차 기사, 여급, 간호부, 화가, 교사, 작가 등, 당대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들이 다양하게 망라되는 경향을 보인다.<sup>74)</sup>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여 특정한 삶의 흐름을 제시하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편집의 편이나 특집기획에 따라 서사의 내용과 주체의 본질을 규정해서 글 청탁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인으로서 공적영역에서 일어나 사건들을 서사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반면, 전통적인 여성 역할 범주 안에 있는 자기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는 글들도 적지는 않다. 전통의 자기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서사의 주체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사는 여성들이 아니라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근대성을 어느 정도 체화한 여성이라는 점이다.<sup>75)</sup> 결혼한 여성에게는 친숙한 주

74) 『예』 가수: 이난영, 「가수생활 6년간: 나는 두어린애의 어머니입니다」, 『조광』 4.7(1938.7); 김선초, 「고향을 등진지 10년」, 『삼천리』5.3 (1933.3); 기업사장: 김옥교, 「육십만원회사의 여사장자전: 천향각호텔 김옥교 여사의 반생기」, 『삼천리』 10.5(1938.5); 연극인: 김복진, 「무대생활십년기」, 『조광』6.5(1940.5); 배우: 김태영, 「나의 배우생활 10년기-정열적인 세계」, 『삼천리』13.1(1941.1); 무용인: 배구자, 「무대생활 20년: 만히웃고, 만히울든 지난날의회상」, 『삼천리』7.11(1935.12); 비행사: 이정희, 「청공에서 보낸 나의 비행고난 10년사」, 『조광』2.5 (1936.5); 김복남, 「새가 되기까지 내가 꿈중 나는」, 『여성』(1939.6); 자동차 기사: 김영희, 「비행사가 되려는 준비로 자동차 운전수가 된 나」, 『조광』2.4 (1936.4); 여급: 장영순, 「내가 여급이 되기까지」, 『신여성』(1933.3); 「간호부」 강계순, 「간호부의 하소연」, 『신여성』(1933.2); 교사: 나혜석, 「나의 여교원시대」, 『삼천리』(1935.7); 작가: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신가정』(1935.12).

75) 『삼천리』1940년 4월호는 최선복(주요한 부인, p.234), 강명희(김기진 부인, pp.593-595), 김현숙(박영희 부인, pp.290-292), 이준숙(노자영 부인, pp.293-295), 김현경(김동인 부인, pp.296-297), 이경원(이효석 부인, pp.278-279), 고일신(이무영 부

제인 신혼기,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이 여성으로서 겪는 특정한 사건들을 글의 주제로 삼아 접근하는 글도 많은데, 근대적인 지향성을 지닌 여성이 겪는 생물적 사회적 경험이라는 점에 글의 새로움이 있다.<sup>76)</sup>

192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경험이 여성의 자기서사 장르에 수용이 되면서, 출판용 자기서사는 더 이상 공인 명사들의 독점담론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자기서사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생들과 여급들의 자기서사이다. 전통편의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생들은 궁중여성과 양반여성들과 함께 전통여성 자기서사의 필자로 등장하였는데, 근대에는 속칭 화류계의 여성들이 개별적인 자기서사를 생산하는데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잡지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반에 화류계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권번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기생과 근대에 생긴 유흥접대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급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목할 점은 기생과 여급 모두 자기들만의 잡지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기생들이 먼저 1927년에 잡지 『長恨』을 창간하였고, 1934년에 여급들을 위한 잡지인 『女聲』이 세상에 나왔다.<sup>77)</sup> 『長恨』에는 “조선”이라는 과거 역사를 한 몸에 받아 안으면서 자신의 삶과 민족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

인, pp.300-302), 심재정 (유치진 부인, pp.303-304), 등 유명작가들의 부인들로부터 가정주부로서의 수기를 받아 신고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부인들의 최종학력을 이름 옆에 적는 것이다. 이들은 거의 여전 혹은 여고출신이다.

76) 신혼기를 회고한 글: 백신애, 허영숙, 최승희, 장덕조, 박길래의 신혼(여행)기, 『삼천리』(1935. 7); 장문경, 「오히려 지금이 신혼기분: 나의 결혼시대회상기」, 『여성』(1940.4); 전희복, 「결혼전후: 결혼초일의 일기」, 『삼천리』(1941.12); 임신과 육아의 경험: 나혜석, 「나의 어린애 기른 경험」, 『조선일보』(1926.1); 남궁요안나, 「나의 초산기: 겁을 내는 남편」, 『여성』(1940.11); 최명렬, 최선복, 임호정의 「어머니일기」, 『신동아』(1932.1); 박외선, 「애아일기: 사랑하는 종기에게」, 『삼천리』(1941.6); 참척의 고통을 다룬 글: 허영숙 「다녀간 愛兒여」, 『삼천리』(1935.3); 결혼생활: 강복신, 「나의 즐거운 가정기: 신가정의 윤리」, 『삼천리』(1941.1); 백철 부인, 「나의 즐거운 가정기: 초가나마 즐거운 우리집」, 『삼천리』(1940.10).

77) 『장한』은 창간호가 1927년 1월에 발간되었는데, 김근수의 한국잡지사에 의하면 2호까지 발간되고 중단되었고, 『女聲』은 1934년 4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제2호의 목차가 창간호에 게재된 것으로보아 2호도 최소한 준비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의식을 견지하는 기생의 글들이 많은 반면, 『女聲』에는 민족의식의 흔적은 별로 없고 자신의 노동을 철저히 근대의 노동체계의 속성으로 보고 다른 직업인들과 평등한 위치를 주장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잡지의 성격이 판연히 다른 것같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삶을 재현하고 불의를 호소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모색하려한다는 잡지의 기본전제는 동일하다. 특히 이러한 잡지의 기본전제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長恨』과 『女聲』의 지면을 많이 채운 단편 자기서사 장르였다

『長恨』 창간호의 「지금부터다시살자」(김계현)처럼 제목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결의를 강조하는 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삶의 불행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생이나 여급이 되어 세간의 질시를 받고 손님들의 홀대를 견뎌야했던 자신의 삶의 불행을 재현하는 글이 많다.<sup>78)</sup> 이러한 글은 공통적으로 가족의 불행, 공동체의 부재, 불확실한 미래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행의 서사를 쓴 저자일수록 왜 그러한 글을 쓰고 출판하는가 라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집단적인 정체성 확인함으로써 절망 대신 희망을 일으키고, 자신을 위안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독자의 각성을 촉구하려 한다는 등의, 자기서사의 동기를 자의식적으로 표현한다.<sup>79)</sup>

불행하면 불행한대로 자기의 삶을 사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시적 상상력과 언어구사력을 통해 자기의 삶을 존중과 긍정의 대상으로

78) 예: 「기생생활의 이면」(금란홍); 「눈물겨운 나의 애화」(이월향); 「파란중첩한 나의 前半生」(백홍황).

79) 『女聲』의 자기서사의 경우, 예를 들면 「更生의 道」를 쓴 카페-玉冠의 順子は “이러트 시 눈물겨운과거를가진 내가 압날의무슨희망이 잇게슴닛가 만은저의결심한바는 남편 업는녀자들과 손목을잡어 압날의 그무슨 희망을세여 불가합니다”라고 적어 기혼여성 처럼 남자들에 의존할 수 없는 여급의 집단적인 정체성에 기대어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였고, 「내가갓고잇는길은 가시덤불길」을 쓴 金明淑은 “나의환경을 이리지면을통하여 쓰는 것은 나자신에대한 불만을지면상에 폭로하는것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것을 씬에의하여 조금아하나마 마음의위안이 될는지도모릅니다 그리고일반의 나에 대한 각성의그무엇이될수업다고도 할수업습니다” 라고 자기위안과 타인 각성이라는 자기서사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카페-玉冠의 順子, 「更生의 道」, 『女聲』 1 (1934.4), pp.15-17; 金明淑, 「내가갓고잇는길은 가시덤불길」, 『女聲』 1 (1934.4), pp.12-14.

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 카페-백마(白馬)의 백합자(百合子)라는 이름의 여급이 쓴 「한폐지(紉傳)」은 자신이 해석한 자신의 개인사를 제목 그대로 한 페이지 정도의 길이로 표현한 시적 산문이다.<sup>80)</sup> 〈부평초(浮萍草)〉라는 부제가 달린 이 글은 대중 유행가의 가사의 느낌을 자아내는 통속적인 언어를 감상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나, 언어의 선택은 어느 시 창작에 못지 않게 압축적이고 정밀하며, 글의 구성과 전개 또한 자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특히 시로서의 잠재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백합자의 글을 비롯하여 많은 기생과 여급들이 표현한 반복적인 일상, 상실과 허락과 해체와 축소의 삶에 대한 자기서사는, 새로운 세상의 열림과 상승과 성취와 확대의 이미지로 특징지워지는 엘리트 여성들의 성장서사와 다른 결의 삶을 보여준다. 물론 살아온 삶을 재현하는 이러한 일회성의 자기서사가 이미 해체되고 파편화되고 천시당하고 타락된 것으로 파악된 삶 자체의 본질을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서사의 글쓰기와 특히 출판이라는 공적인 계기는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과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매몰될 수 있는 저자들에게 주체적 자기성찰과 삶의 객관화, 적극적인 자기대면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본질적 모습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자신에게의 진정성을 일깨우고, 계속될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자기서사는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언어행위를 통해 구성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기서사 장르가 저자들에게 갖는 효용은 자기탐색, 자기표현, 현실증언, 자기도취, 자기현시, 자기합리화, 자기치유, 자기해명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었을 터인데, 근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동기 외에도 공적 주체로서의 책임감, 물질적 사회적 대가 등이 새로운 동기군을 이루었으리라 추측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던 근대여성의 자기서사에는 ‘여성’으로서 개인이 되는 과정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자기서사의 경우 여성과 대타적

80) 카페-白馬의百合子, 「한폐지(紉傳: 浮萍草)」, 『女聲』1 (1934.4), pp.20-21.

의미로서의 남성의 남성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공적인 자기서사의 서술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자신의 성장과정, 교육과정, 전문직 추구과정은 주저하지 않고 밝혀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생활, 성생활,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고 대신 공적사회에서 일어난 개인사 서술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의 씨름이 중요한 서사의 주제로 등장한다. 이 씨름은 공인으로서의 여성성과 사적인 자아로서의 여성성 사이의 씨름이 될 수도 있고 근대적 여성성과 전통적 여성성 사이의 씨름이 될 수도 있다. 여하한 경우이건 이 여성성과의 씨름은 여성자기서사의 특징이다. 일제 강점기 여성의 단편 자기서사들은 한국적인 여성근대성의 규칙과 교과서가 채 마련되지 않은 시대에 식민지치하의 제도교육이 줄 수 없고 전통적인 가정교육도 제공할 수 없는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과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여성과 근대 보편인으로서의 삶의 실제와 이상을 조율해주는 삶의 참고서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3. 맺는 말: 근대여성의 단편 자기서사의 의의

지금까지,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 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잡지 지면에 출판된 여성들의 단편 자기서사들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간주하고 그 장르가 등장하게 된 출판계의 역사와 사정, 장르의 특징과 의의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근대 여성 단편 자기서사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물질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잡지를 통한 출판이라는 생산통로와 피식민지배 경험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이 일제 강점기의 여성 자기서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로서의 단편 자기서사의 형식적 주제적 특성들을 그 생산과 수용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과 함께 고찰했을 때 우

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여성들이 필자로서 독자로서 이 단편 자기서사의 생산과 수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장르는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대중교육과 사유촉진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근대 단편 여성 자기서사에 선택된 형식과 주제는 당시 증대되는 근대 여성독자군을 상대로 여성근대화의 요구에 부응한 근대 잡지 출판계의 생존전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자기서사 생산에서 드러나는 여성필자의 높은 장르 점유도는, 민족모순이나 계급모순에 대한 체제비판적 담론이 억압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명도 있는 남성의 자기서사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접열과 같은 식민지 기제들의 여파로 생겨난 식민지적 특수상황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논문의 길이 및 연구 시간의 제한으로 근대여성 단편자기서사에 대한 개관적 문제제기 차원에만 머물렀다. 김원주의 자기서사의 텍스트에 대해 시행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텍스트 읽기, 저자, 독자, 잡지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경험적 연구, 가 보강된 연구가 누적될 때 비로소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의 내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이 공동연구의 근대편에서는 출판이라는 생산조건을 중심으로 주로 전통과 근대의 불연속성을 주요 맥락으로 해서 자기서사의 특색을 살펴보았는데, 전통과 근대의 자기서사의 연속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과 근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을 계속 심화시켜야 하겠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만 한정하여 근대한국 여성의 자기서사를 고찰하였는데, 근대성의 전모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경험 이후의 자기서사 생산과 수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적 압력이 자기서사 형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방공간에서의 기억의 서사행위와 자기서사 생산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분단체제와 냉전구조의

규정력 속에서 남과 북 각기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달리 진행된 여성 자기서사의 전통을 점검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남성 자기서사와의 비교학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일본과의 비교학적 연구도 우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 필자 : 시카고대학 교수(The Univ. of Chicago)



Abstract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3)

Pak, Hye-Sook

Choi, Kyeong-Hee

Park, Hee-Byou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via Japan of the Western genre of autobiography, Korean journals and magazines of the 1920s and 30s and women's journals in particular began to carry a considerable number of short self-writings by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 series of issues and questions about their formal and substantive characteristics and to historic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re and the gender of authorship. With a view to conducting a formally sensitive and contextually alert study of this genre, I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following seemingly disparate but often interconnected phenomena found in and around the conspicuous proliferation of women's short self-writings: the formal peculiarity of being usually only a few pages in length; the relative youth of the authors and the special emphasis in the writings given to portrayals of girlhood and the making of a professional life; and the high concentration of woman authors working in this genre.

Overall, Korean women's self-writings during the colonial period served as an occasion for their authors, and as a resource for their readers through which to formulate a modern sense of identi-

ty as individuals and women and to address and deal with concrete life issues regarding female modernization. This paper works from the premise that the form and substance of this emerging modern genre were over-determined by political and material conditions of colonial modernity surrounding the venues of their publication, that is, journals and magazines. On the basis of the analytic overview of some key characteristics of the texts and their contexts, this paper argues that Korean women's self-writing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re promoted by a magazine industry that recognized the growing number of modern female readers and their desire for female modernization, but were at the same time affected by the colonial constraints of magazine publication culture, in which female authors' self-narratives could find more openness toward publication due to the relative lack of radical elements that would invite the colonial censor's harsh orders when politically and intellectually more influential figures—usually male—often found themselves unable to narrate their life stories with freedom and in length.

**key word** : self-writings, proliferation, modern sense of identity, magazine industry, colonial constraints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